

이사회, 총장후보추천 '2안'의결, 교수 2·학생-직원 1인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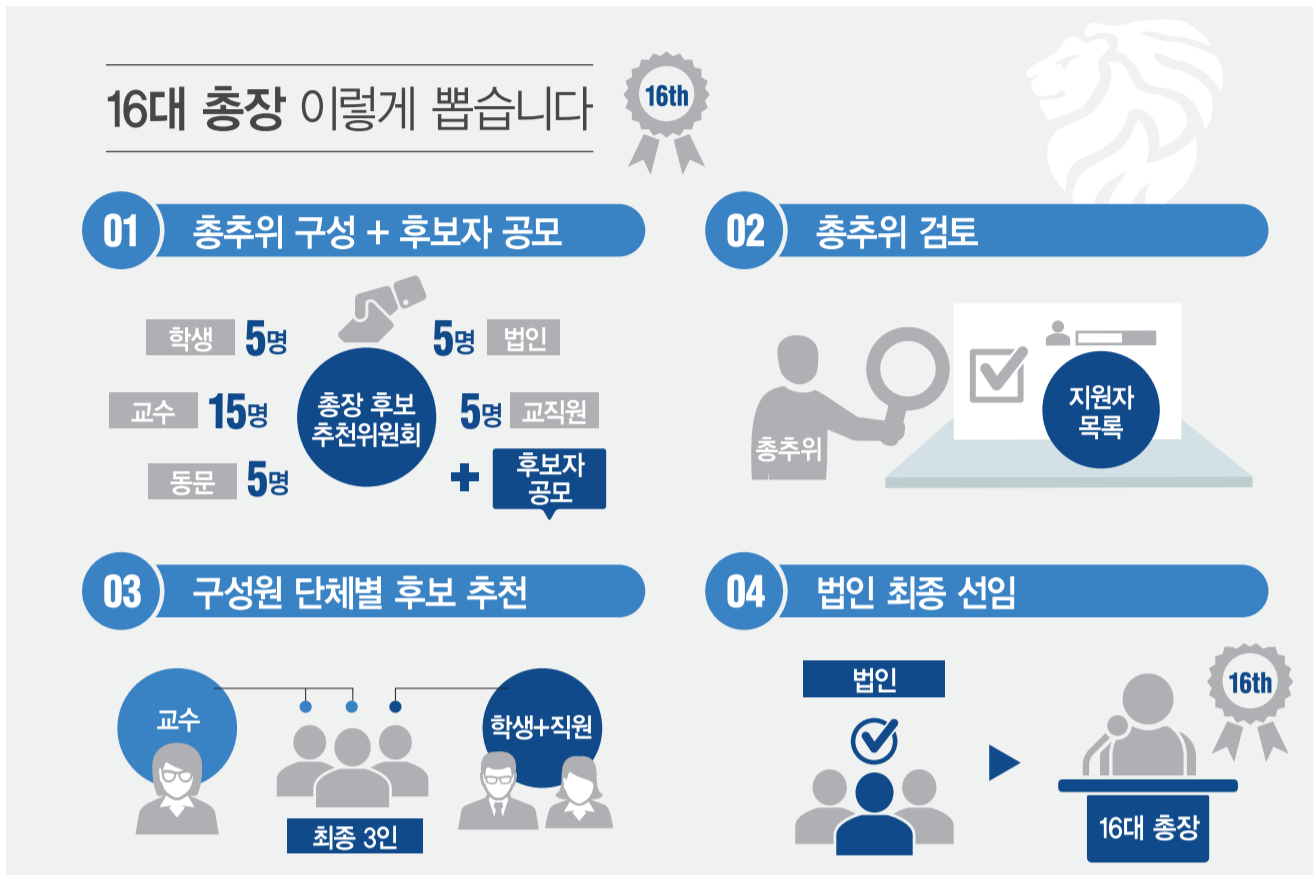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총장 후보 추천안이 구성원 단체별 추천(2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박영국 총장직무대행(대행)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문을 지난 17일 구성원에게 발송했다. 결국 참여한 대립을 이어온 구성원 단체별 투표비율 추천안(1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10개월간 이어지고 있던 대행 체제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구성원 사이 갈등이 이어져온 총장 후보 추천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지난 8월 28일 제 2차 법인 이사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인 이사회는 박 대행으로 하여금 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한 총장 후보 추천안을 확정지은 뒤 9월에 열릴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다.

제 2차 법인 이사회 이후, 지난 6일 박 대행은 구성원 간 투표 비율 이견을 좁히기 위해 학내 구성원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를 통해 교수와 학생 투표 비율은 각각 69%와 15%로 합의됐다. 하지만 직원과 동문이 나뉘어 남은 16%의 투표 반영 비율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대행은 당시 열린 회의에서 경희대학교 노동조합(제 1노조) 한상 위원장에게 직원과 동문 투표 비율을 논의해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일 직원과 동문 투표 반영 비율에 대한 논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안으로 진행된다는 사실 또한 논의됐으며 위 사항을 교무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이사회에 상정한다는 논의까지 이뤄졌다.

회의 이후 제 1노조 한상 위원장은 총동문회와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교수의 회 측에 1% 투표 반영 비율 양보를 요청했고 교수의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직원과 총동문회의 논의가 이뤄져 지난 7일 한 위원장이 박 대행에게 최종 타결된 1안을 통보했다. 하지만 논의 이후 지



지난 20일 학교법인 경희학원 명의로 우리학교 총장을 새로 초빙한다는 소식이 여러 일간지 광고를 통해 전달됐다. 이사회가 총장후보추천안을 의결한 이후 우리학교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총장 선임을 위한 과정에 들어갔다.

난 9일 오전, 경희학원 통합노조(제 2노조)와 민주총동문회는 교수의회 1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논의된 두 개의 총장 후보 추천안을 가지고 지난 9일 박 대행은 심의 기구인 임시 교무위원회를 소집했다. 박 대행은 지난 18일 이뤄진 우리신문과의 만남에서 “당시 이뤄진 교무위원회에서 대행 체제가 1년 가까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짧은 기간 내 새로운 총장을 선임하기 위해 어떤 안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당시 교무위원회 논의

결과 조속한 총장 선출을 위해서는 2안 이더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후 지난 11일에 열린 법인 이사회에서 박 대행은 논의된 두 개의 안을 보고했다. 박 대행은 당시 이사회에서 대학의 조속한 총장 선임을 위해선 2안이 적합하다는 교무위원회 의견을 제출했고 2안이 법인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 당시 법인 이사회에서 법인은 우선 법인 5명, 교수 15명, 학생 5명, 교직원 5명, 동문 5명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를 구성하라고 요청했다. 총추위는 추천과 공모에 의해 지원한 후

보자를 검토하고 구성원 단체에 통보해 추천을 의뢰한다. 이후 구성원 단체별 추천 후보 3명(교수단체 2인, 직원/학생단체 1인)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최종적으로 법인은 보고된 후보 3명 중 1명을 총장으로 선임하게 된다. 하지만 의결된 2안에 대해 구성원 대표단의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교수의회 강재식 의장은 “논의가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선거 방식의 절차가 아닌 투표 반영률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었다”며 “75% 교수 투표 반영 비율을 68%까지

양보하는 노력을 보였지만 2안이 의결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최종 입장은 전체 대의원 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 1노조 한상 위원장도 “2안 의결이 쉽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사회 결정을 번복하고 싶지는 않다”며 “어찌됐든 구성원 손으로 뽑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총학) 전완주(일본어학 2015) 회장은 “양 캠퍼스 총학생회에서 주장했던 학생 투표 반영률이 확보돼 다행이고 올해 안에 새로운 총장을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1안 논의가 계속되던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차선책 필요성을 주장해온 제 2노조 장백기 위원장은 “이미 오랜 시간 투표비율로 갈등을 겪어왔고 심지어 현재까지도 투표비율은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라며 “이번 이사회에서 2안이 의결된 것은 총장 선출을 신속하게 이뤄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말했다.

2안의 의결로 총장 후보 추천안에서 투표권을 얻지 못한 총동문회는 지난 18일 의결된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총동문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사회 의결 과정은 총동문회가 배제된 채 전광석화처럼 진행됐으며, 비합법적이고 비도덕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의결된 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동문회 권오형 회장은 “그동안 회의에 참석해온 전병관 동문대표가 교수의회에 투표비율에 대한 타협안을 제출하며 양보하는 태도를 취해왔다”며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논의에서 동문을 배제한 것은 문제가 있기에 지난해 11월에 합의한 투표비율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면으로 이어짐

THE 세계 대학 순위 발표, 우리대학 종합순위 상승

정유나 기자 yunaight@khu.ac.kr

우리대학이 지난 11일 ‘타임스 고등교육’(THE : Times Higher Education)이 발표한 ‘2020 세계대학 순위’에서 국내 8위, 아시아에서는 31위에 올랐다. 종합순위는 351-400위에서 301-350위로 상승했다.

‘THE’는 QS(Quacquarelli Symonds)와 더불어 영국의 권위 있는 대학평가 기관이다. 교육, 연구, 논문피인용, 국제화, 산학협력 수입 등 총 5개 분야를 기준으로 대학순위를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대학은 교육 33.8점, 연구 40.5점, 논문피인용 56.4점, 산학협력 수입 84.9점, 국제화 62.6점을 받았다. 교육 부문은 작년에 비해 0.1점 하락했으며, 산학협력 수입 부문에서는 2.0점, 국제화 부문에서는 2.1점 하락했다. 그러나 논문피인용에서는 무려 6.1점, 연구 부문에서는 2.2점 상승해 작년보다 종합순위가 상승했다.

이번 평가에는 92개국의 상위 1300개 대학이 포함됐다. 이 중 국내 대학은 31개교다. 우리학교는 작년 국내 순위에서 나란히 8위에 올랐던 한양대를 제치

고 세계 301~350위에 랭크됐다. 우리학교보다 상위 250위 안에 랭크된 우리나라 대학은 서울대, 성균관대, KAIST, POSTECH, 고려대, 연세대(서울캠퍼스), UNIST다.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을 제외하면 종합대학 중에선 5위에 올랐다.

THE아시아대학평가에서는 우리학교가 31위를 차지했다. 국내 대학 중에는 서울대 9위, 성균관대 10위, KAIST 13위, POSTECH이 16위를 기록했다. 이어 고려대 19위, 연세대(서울캠) 21위, UNIST 22위를 기록해 우리학교가 국내 대학 중 8위에 올랐다.

지면안내

생명과학대학 장학금 논란
제도 하점 이용한 관행이 원인

▶3면

2019 PEACE BAR FESTIVAL
“기후변화 대처, 정치적 의지 모으기부터”

▶6면

알림

사령

〈명 정기자〉
장보경(언론정보학 2018)
한진석(한의예 2018)

시선

사설

민주적 총장 추천 계획은 성립했나

일단 결과는 나왔다. 총장 후보 추천 계획을 둘러싼 갈등이 봉합 국면을 맞았다. 총장 후보 선출 계획이 2안으로 알려진 구성원 단체별 추천안으로 최종 의결됐기 때문이다. 긴 논의의 끝이 보이는 현 상황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우리 손으로 70년 만에 총장을 뽑는 일일보한 모습에 다가가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총장이 선출되기 전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절차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우선 구성원 대표단과 다수 구성원이 의의해하는 동문 배제 문제다. 동문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총장 후보 추천 계획 논의 초반 당시 약 15%의 투표 반영률을 가지고 회의에 참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투표 반영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자 결국 4%까지 투표 반영률의 양보가 이뤄졌다. 약 11%의 투표 반영률이 없어진 것이다.

반면, 교수의회는 1안에서 68%의 투표 반영률을 확보했다. 교수의회 소식을 통해 그 동안 나머지 구성원 단체 및 전 교수의회 의장이 줄곧 강력하게 주장해온 53.8%까지 떨어졌던 교수 투표 반영비율을 약 15%나 올렸으니 엄청난 성과라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동문회가 스스로 가지고 있던 투표 반영률 중 11%를 양보하면 서까지 학교의 새로운 총장을 뽑는 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다.

그렇다. 동문은 약 11%의 투표 반영률 양보를 통해 이번 총장 투표에 강한 참여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9월 6일 학내 구성원 대표자 회의에 어떠한 양해의 말도 없이 회의

에 배제됐다. 대학은 동문 배제 이유를 논의 시간의 촉박함으로 설명했다. 시간의 촉박함은 내부 구성원의 합의 과정이 치열했다는 반증이며 민주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하지만 그것이 이전부터 혐의를 해오던 구성원의 배제로 결론이 난 것은 아무래도 아쉽다.

또한 민주노총 경희의료원지부(의료원 노조) 구성원이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도 설명이 필요하다. 의료원 노조는 1안으로 가든 2안으로 가든 총장 후보 추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명확한 유권 단체이다. 하지만 논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같은 이유와 단순히 ‘학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 아니라 이유로 유권 단체 또한 배제한 채 회의를 진행했다. 투표권은 주지만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선 배제된 것이다. 묘한 과정이다.

어찌됐든 결과는 나왔다. 이제 와서 과정상 매끄럽지 않은 부분을 언급하며 결과를 번복하는 것은 늦었다.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지 않더라도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장애물이 많았다. 하지만 구성원의 대표자인 총장을 뽑는 자리에서 구성원 모두가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한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다.

일부에서 지적하듯 총동문회의 각종 성명전이 구성원의 피로감을 높여왔다는 점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동문은 여전히 학교에 기여하는 주요 구성원 중 하나다. 지금의 방안은 결국 계속해서 구성원 간 분란과 뒷말을 만들어 낼 여지가 높아 보인다. 처음 내세웠던 민주적 총장 선출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의 진실, 누가 진짜 양 떼를 죽였나

세시봉

김지원 <서울뉴스팀장>



어린 시절 우리에게 양치기 소년 이야기는 필수교양과 같았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주기 때문이다. 양치기 소년의 “늑대가 나타났다!”는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두 번이나 언덕에 올랐다. 그러나 세 번째에는 어쩌면 당연하다는 듯 오르지 않았고 그들은 양 떼를 잃었다.

조금 다르게 보면 어떨까? 이야기에서 소년은 늑대가 나타났음을 알리는 일종의 경보 시스템이다. 사실 소년이 처음 거짓을 외쳤을 때 언덕에 올랐던 이들은 경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고 결국 양 떼를 잃었다. 문제 있는 시스템을 방관한 죄를 다른 생명의 희생을 통해 아프게 겪은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고장 난 경보기를 탓하며 화를 낼 뿐 다시 언덕을 내려간다. 방관의 죄를 다시금 짓는 셈이다. 언젠가, 언젠, 그러나 반드시 아픈 희생이 반복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최근 우리신문은 행정상의 구멍을 여럿 보도했다. 먼저 지속적인 문제로

떠올랐던 대학원생 조교 장학제도(조교제도)가 있다. 사실상 조교가 노동자나 마찬가지로 불구하고 4대보험이나 주휴수당과 같은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심지어 신분상 학생인 조교가 학생으로서 권리까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학교는 지난 1학기부터 일방적으로 노동시간과 장학금을 함께 줄이는 형태의 조교제도를 적용해 공분을 샀다.

세월의 풍파가 만드는 시스템 구멍
본질적 문제 외면하는 것도 ‘방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구색맞추기식 개편이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어 지난 8월 조교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당사자와 학교 간 소통의 부재로 근무시간 산정과 기타 지원 등 세부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 개편안 발표 후 이과대는 조교 배치를 미룬 바 있다. 이로 인해 당시 학생들은 조교가 필요한 실습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본질적인 조교제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충분히 반복될 수 있다.

획일적인 폐강기준에 대한 기사는

지난 2017년에도 우리신문에 보도된 바 있다. 당시 기사에는 “학과 사정에 맞지 않는 폐강기준 때문에 학생들과 학과 행정실 모두 소모적인 업무를 하는 것 같다”는 음악대학 학생의 멘트도 실렸다. 그러나 2년이 지난 2019년까지도 작곡과 조교는 2학기를 앞두고 12장의 강의 개설 신청서를 제출했다. 때문일까 “획일적인 폐강기준으로 소수학과가 번거로움을 겪는 것은 알지만 기준 조정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관련 부서의 답변은 보다 충격적이었다. 노동의 강도를 떠나 그것이 소모적이라면, 또 그러한 노동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 이는 분명한 행정상의 구멍인데 말이다.

세상에 완전한 시스템이란 존재할 수 없다. 시스템도 결국 사람이 만든 것이고 때문에 변화하는 세상에 낡고 뒤쳐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체돼 있을 수는 없다. 주기적인 보수와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또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덮어놓고 기원하려는 노력이 방관과 다름없다는 사실도 짚고자 한다. 임시방편은 말 그대로 새 시스템 마련을 기다리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학내외의 솔한 사례들이 이를 증명하는 한 이는 결코 확대해석도, 단순한 동화도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침은 그냥 찾아오지 않는다

취재수첩

김성수 기자
korkeep@khu.ac.kr



“기자의 말이 아닌,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취재수첩 가장 앞쪽에 적어놓은 문장이다. 수습기자 교육을 받았을 때 필기한 것으로 기억한다. 가끔씩 기사를 쓰기 전, 취재수첩을 꺼내서 이 문장을 되새겨보곤 한다. 1648호부터 네 차례에 걸쳐 ‘경희의 아침을 여는 사람들’을 만나봤다. 지금부터는 이들의 이야기가 아닌, 내 얘기를 잠깐 해보려 한다.

나는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에 들어가면 ‘학생 기자 활동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온 주변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만 혈안이었을 때다. 나는 쉬는 시간마다 절친 두 명과 함께 학교 운동장을 걸으며 대입 이후 계획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당시 나에겐 당장의 입시 전정보다 꿈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이 우선순위였다. 기자가 되고 싶다는 꿈은 이 운동장에서 생겼다.

단순히 글쓰기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자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싶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하다. 기자 활동을 통해 취재원의 생생한 증언을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다. 그들의 목소리를 보다 많은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바로 기자의 역할이다. 이는 나에게 대단한 매력으로 다가왔다. 나는 입학하자마자 곧바로 대학주보에 지원서를 냈다.

아직 준비가 덜된 탓이었을까. 그때 기자 활동을 돌아켜보면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방울이 모여
우리학교의 아침을 이룬다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싶어서 대학주보에 들어왔지만, 그 마음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새 나는 편집실에서 밀린 과제 하듯 기사를 꾸역꾸역 짚어냈다. 그때 편집실 책상 위에서 쓰인 기사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없었다. 2017년 3월, 임영통지서가 송부되기도 전에 나는 군대에 자원했고 형, 누나, 동기들에게 짐만 남긴 채 도피하듯 대학주보를 빠져나왔다.

내 입장만 생각했었던 철없는 신입생은 이제 복학생이 됐다. 개강하고 며

칠이 지나지 않았던 날, 나는 습관적으로 대학주보 홈페이지의 기사를 읽고 있었다. 그때 기자 활동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단 강한 충동이 들었다. 기자 모집 마감 이틀을 남겨두고 부랴부랴 지원서를 작성해냈다. 특히 ‘사람을 많이 만나보는 것’, 기자가 되고자 했던 이유인 그 일에 다시 도전해보고 싶었다.

그 첫 번째 기획이 바로 ‘경희의 아침을 여는 사람들’이었다. 첫 기사부터 독자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전플 릴레이’를 보며 속으로 이게 꿈인가 싶었다. 새벽잠을 줄이면서까지 기사를 썼지만, 그 시간마저 달콤했다. 마음에 드는 문장이 나올 때마다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연재가 나에게 더욱 특별했던 이유다.

연재를 통해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바로 아침은 그냥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학교가 아침의 햇살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자신의 자리를 초심으로 지켜오고 있는 ‘아침을 여는 사람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어느새 창문 밖에서 해가 새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그들의 땀방울이 모여 우리학교의 아침을 이룰 것이다.

만평 - 생명과학대학 장학금 휴학생 수혜·대리수령 논란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2)

발행인 박영국 | 편집인 조영욱 | 편집장 이후송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주소정정 02-441-7317(미레기화) |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news | 이메일 kh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역삼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생명과학대학 장학금 논란 제도 허점 이용한 관행이 원인

문하령 기자 moonbym@khu.ac.kr

【국제】 지난 5일 생명과학대학 (생대) 학생회 김다연(식품생명공학 2015) 회장이 대리수령을 통해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학내에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이에 일부 구성원은 학생회장이란 명목으로 장학금을 수령 받는 점, 학생회장이 임의로 장학대상을 추천할 수 있는 점, 장학금을 등록금 감면 형태가 아닌 개인 계좌로 수령한 점, 학생회장이 당 학기 휴학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대리수령한 점 등의 이유로 김 회장을 비난했다.

지난 4월 김 회장은 생대 학생회의 일원인 A씨를 통해 학생회 활동장학 명분의 ‘밝은사회장학’ 장학금 430만 원을 대리수령했다. 장학금 대리수령은 과거 A씨와 학생회 활동을 함께 했던 최지희(한방재료공학 2015) 전 생대 학생회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비록 학내 장학 규정에 ‘대리수령’을 통한 장학금 수혜가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단순히 학생회에서 그 이전에 이뤄진 관행에 따라 임의로 대리수령을 진행한 점이 구성원의 반발을 빚어냈다. 당시 A씨는 총 430만원의 장학금을 수령받아 그 중 2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가졌고 그 중 410만원이 김 회장에게 전달됐다. 그리고 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 학기에도 같은 부탁을 받자 A씨는 이를 거절하고 우리학교 방송국에 먼저 위 사실을 알렸다.

논란의 중심이 된 학생회 활동장학은 ‘밝은사회장학’ 중 하나로 학생회 활동에 따른 보상형 장학이다. 밝은사회장학은 장학팀에서 선정하는 타 장학과 달리 단과대학마다 개별적인 기준으로 선정된다. 생대는 밝은사회장학 중 하나를 학생회 활동장학으로 규정해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집행부, 학



과 대표를 수혜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학생회장은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는다. 하지만 여기서 장학 추천권이 학생회장에게 배당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불씨가 커졌다. 학생회장이 장학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면 임의로 장학금을 분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 회장은 “학생회장이 장학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책정된 액수에 맞춰 행정실에 장학명단을 제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김 회장은 “장학명단을 작성하기 위해선 장학대상자가 인적사항과 학적정보를 직접 기입하고 서명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생대 장학위원회에서 장학명단이 교수진의 승인을 받으면 장학금 배분이 집행되는 시스템이다.

또 논란을 빚고 있는 장학금 개인 계좌 수령은 장학 신청시기가 늦었던 이유였다. 학생지원센터 장학팀에 따르면 고지서 발급 최소 1주 이전에 선발된 학생에 한해 등록금 감면 형태로 장학금 수혜가 이뤄진다. 하지만 학생회 활동은 고지서 발급 이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등록금 감면 형태의 장학금 수

혜가 불가능하다. 장학팀 강덕현 과장은 “보통 학생회는 학기 중에 활동인원이 구성되기 때문에 개인 계좌로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회장이 지난 학기에 휴학상태였던 것이 문제였다. 우리학교는 장학 지급 대상자를 재학생에 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대리수령은 이전부터 이어져온 관행으로 잘못된 절차인지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장학팀 강 과장은 “이번 사례 이전에 대리수령 건과 관련해 본부 차원에서 따로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휴학생 수혜 여부 관련 규정에 지속적인 요청이 들어온다면 서울캠퍼스와 협의 하에 개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불리 목소리를 낼 경우 또 다시 사실이 와전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다”며 “학생회장이란 직책 하에 표명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대처하고자 했다”고 털어냈다.

생대 행정실은 집행기준이 모호하고 지적받은 학생회 활동장학에 대해 “학생자치활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학생회와 개선방향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일관계 개선위해 도쿄대 방한 “친밀한 이웃국가 됐으면”

이서림 기자 sllee1001@khu.ac.kr

【국제】 지난 18일 도쿄대학교(도쿄대) 학생들이 우리학교에 방문해 최근 한일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행사 주제는 ‘한일 미래 세대가 꿈꾸는 아시아’로, 우리학교 일본어학과와 비교문화연구소가 주관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생들의 시선에서 한일관계를 돌아보고 관계 악화의 원인은 무엇인지, 어떠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고자 개최됐다. 행사를 주관한 일본어학과 손지연 학과장은 “더 이상 정치 차원에 기밀수 없다”며 “시민의 참여가 절실한 때이다”라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특강은 도쿄대 국제교양학부 가와무라 하지메 교수가 진행했다. 하지메 교수는 학생들을 직접 인솔해서 대문형무소와 수요집회를 찾는 성찰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이번 특강에서는 전쟁역사에서 파생된 일본문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 역사교육문제, 지향점 등에 대해 입을 열었다. “과거의 일을 없었던 것 마냥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옳지 않다”며 “일본은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규제의 출발점인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야세 정부의 움직임에도 일본은 잔잔하다고 언

급했다. 일본인은 도덕적 가치보다는 공동체를 과도하게 의식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어려워한다는 것이 하지메 교수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1950년대부터 교육과정의 개정때 젊은 세대는 침략역사를 잘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일 학생들이 조를 이뤄 이야기를 나누는 교류행사가 열렸다. 행사에 참여한 오경현(일본어학 2015) 씨는 “최근 뉴스를 보며 일본에 편견이 있었는데 양심적인 일본인도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토야 사오리(도쿄대) 씨는 “지금 한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인데 앞으로는 친밀한 이웃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며 바람을 말했다. 역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일본 교육과정을 통해선 올바른 역사를 알 수 없었다”며 “민간교류를 통해 알아간다면 정권과는 무관하게 아래-위로 여론이 형성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비록 작은 규모일지라도 실천적 교류가 한일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교육자, 지식인이 연대해야 미래세대가 평화의 아시아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메 교수는 “서로의 사회와 역사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교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면에서 이어짐

이에 더해 그 동안 합의를 더디게 만든 회의체의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권오형 회장은 대학평의원회(대평의)와 범경희대학위원회(범대위)에서 논의된 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규탄했다. 하지만 총장 후보 추천안 논의가 이뤄진 회의체의 대표성에 구성원 대표단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교수의회 강 의장은 “교수의회가 이제까지 대평의에서 총장 후보 추천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갈등을 겪으면서 시간이 지체되는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법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학이 주관한 회의에 늘 참여했고, 이번 구성원 대표자 회의도 같은 맥락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제 2노조 장 위원장 역시 “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학이 마련한 자리에서 의결된 사안이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 1노조 한 위원장은 “명분상으로 아쉬운 상황이지만 차후에 있을 세부 논의를 통해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총장 후보 선출 계획으로 1안이 협의됐다는 교수의회 소식지가 발행된 후 2안으로 구성원 의견이 수렴됐다는 박 대행의 통신문으로 구성원 혼란이 야기됐다. 박 대행은 이를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행은 “지난 6일 열린 학내 구성원 대표자 회의에서 1안의 직원과 동문 간 투표 반영률이 합의되지 않을 시 해당 안은 폐기된

다고 명시했다”며 “하지만 합의가 된다면 1안과 2안 모두 법인 이사회에 상정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 대행은 “당시 교수의회는 1안의 직원과 동문 간 투표 반영률 합의가 완료된다면 2안이 폐기된다고 판단했다”며 “1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최종적으로 1안이 결정됐다는 내용의 소식지를 발행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총장 선임을 위한 과정에는 여전히 남아있다. 선거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와 직원·학생 단체 간 투표 반영 비율 합의다. 제 1노조 한 위원장은 “2안으로 총장 후보자 추천 규정이 정해졌으니 구성원 투표 반영률을 제외한 1안의 선거 방식을 그대로 반영할지 혹은 새롭게 논의를 시작할

지 결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수의회 강 의장은 “2안을 채택할 시 직원과 학생 단체 투표 비율에 대한 논의가 또 다시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신속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간은 다시 한 번 지연된다”고 말했다. 제 1노조 한 위원장은 “직원과 학생 단체 간 투표 비율 합의를 위해 제 1노조, 제 2노조, 경희의료원 노동조합(의료원 노조) 간 협의를 끝낸 후 학생 단체와의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대학에서 직원단체 총추위 구성을 다음달 4일까지 완성해달라고 요구했으며 그 전까지 직원과 학생 단체 간 투표비율 논의를 마무리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국제캠 총학 전 회장은 “직원과 학생 간 투표비율 합의는 우선 제 1노조, 제 2노조, 의료원 노조 간

합의가 이뤄지면 시작해보려 한다”며 제 1노조 한 위원장과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박 대행은 “직원과 학생 간 투표 비율 협의에는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지난 6일 진행된 학내 구성원 대표자 간담회에서 신속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박 대행은 조속한 총장 선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박 대행은 “약 2주간의 총장 후보자 공모가 이뤄질 예정이고 동시에 총추위 구성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총장 후보 최종 추천은 오는 10월 25일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박 대행은 “대행 체제가 정확히 1년째가 되는 11월 21일에는 새로운 총장이 선임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획

‘총학위기론’ 해결의 실마리는 역할 규범에 대한 새로운 합의

김수혁 기자 sherko@khu.ac.kr

총학생회(총학)는 대학생 자치의 상징이다. 그러나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따라 학생도, 대학도, 사회도 변화했고 총학 역시 시대의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오늘날 제기되는 총학 위기론은 총학에게 거듭날 것인가 퇴조할 것인가를 묻는 시대적 질문이다.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고 극복의 실마리는 무엇일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필요한 때다.

총학, 나아가 학생자치가 위기를 맞았다는 주장에 통상 가장 빈번하게 불러 나오는 근거는 총학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이다. 매년 낮은 투표율과 출마 선본 부재로 인해 총학 선거가 무산되고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다는 소식을 대학가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들 수 있다. 당장 우리학교 서울캠과 스(서울캠) 또한 작년 전반기를 총학 없이 비대위 체제로 보냈다. 또 연세대는 지난해까지 3년이라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긴 총학 공백 상태를 겪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우리학교에서 치러진 선거들을 돌이켜 보면 총학 공백 사태가 벌어진 건 드문 편이었다. 47대부터 51대에 이르기까지 5년의 임기 동안 서울캠과 국제캠(국제캠) 양쪽을 통틀어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던 것은 세 번이었다. 49대와 50대, 단선으로 진행된 서울캠 선거에서 찬성 표 부족으로 낙선한 경우가 두 번이었고, 다른 한 번은 48대 국제캠 총학의 조기 사퇴가 원인이었다. 이 기간에 우리학교에서 투표율이 부족하거나 출마자가 없어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총학을 구성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우리학교의 학생자치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성급해 보인다. 그보다는 투표 결과가 총학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비교적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준다고 보는 편이 적절하다. 그렇다면 총학이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총학의 역할에 대해 학내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기대가 공존한다는 점이다. 변우성(사회학 2018)씨는 “학교를 다니면서 총학의 존재감을 느낄 때는 길을 지나다 게시판에 붙은 대자보를 볼 때나 축제 때 정도인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변 씨는 “총학이 학교나 정부의 교육 정책 변경 같은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은정(영어영문학 2015)씨는 “총학 선거에 참여했을 때 학생복지 공약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두고 투표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총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복지개선이나 수업환경 개선, 시설관리 등의 사안에 있어 학생

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학이 예전과 같은 면모를 되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재식(철학 2016)씨는 “총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생들이 혼자서는 낼 수 없는 목소리를 모아 대신 외쳐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씨는 또 “총학이 단순히 학생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나 시간강사 등 학내의 다른 구성원과 연대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도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한쪽에는 학생들의 민원과 요구사항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학업, 복지 등의 영역에서 학생 편의를 증진시키는 유능한 관리자 역할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앞장서서 의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 학생 집단의 대표자로서 학교, 나아가 지역사회와 정부를 향해 발언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요구가 있다. 편의를 위해 전자를 ‘행정가 모델’, 후자를 ‘선봉장 모델’이라고 지칭하겠다. 총학을 향한 요구들은 두 모델에 따라 명확히 나뉘기 보다는 구분되는 방향의 경향이 존재하는 스펙트럼 상에 위치해 있다.

현재 우리학교 총학의 직접적인 기원은 군부독재 시기였던 1984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총학은 권위주의, 국가주의 성격이 짙은 학도호국단을 대신하는 대학의 학생자치조직으로서 등장했다. 총학 출범과 함께 제정된 「총학생회 회칙」 전문에서는 학도호국단을 ‘유신잔재’로 규정했다. “이 땅의 민족자주성의 실현, 민주사회의 건설, 그리고 분단된 조국의 하나됨과 이 학원내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하고 완전한 자주화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대학생의 책무라고 선언하고 있다. 총학이라는 조직의 출범 자체가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사회의 건설’, ‘학원내의 비민주적 요소 척결’ 같은 정치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투쟁하는 ‘선봉장 모델’의 구현에 입각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8~90년대를 거치고 2000년대로 진입하면서 총학의 모습도 변화를 겪었다. 총학 선거에서 과거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운동권 성향 선본의 목소리가 학생들이 마주한 사회, 경제적 현실과 괴리되자 점차 설득력을 잃기 시작했고 이른바 ‘비권(비운동권)’ 선본이 각광 받았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충족해 주겠다는 ‘행정가 모델’ 총학의 면모가 강조됐다.

윤성이(정치외교학) 교수는 “80년대는 권위주의 정권 치하였고 90년대 또한 그 연장이라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독재타도’, ‘민주화 완성’ 같은 단일 거대담론으로 학생사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었다”면서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을 이루고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학생 사회 내의 요구도 다양해질 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총학에게 기대하는 역할도 변화했다. 하지만 그 역할이 정확히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과거 학생자치가 지식인으로서 대학생의 사회적 책무와 공동체의 이익을 강조했다면 지금의 학생자치는 개인의 편의와 성취를 보다 중시하게 된 것이고 이런 현상이 가치판단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효형(일본어학 2011) 국제캠 제 50대 총학생회장은 총학이 학생들의 대표자로서 의제를 던지고 힘을 모으는 구심점이 되기가 힘들어졌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개별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면서 “이들테면 총장선출제 같은 학생들의 지지와 총학의 의제 선정이 필요한 사안들보다는 학생복지나 행사 관리, 민원 수리 같은 영역의 정책들이 훨씬 관심도 많이 받고 호평을 듣기도 쉽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학생들이 느끼는 즉각적인 효능감의 차이를 원인으로 해석했다. 명백한 투쟁 상대가 존재했던 과거와 달리 ‘선봉장 모델’이 필요한 영역의 사안들은 너무 복잡하고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아 학생들의 호응을 얻기가 힘들다는 말이다.

김 전 회장은 “임기 동안 학교가 총학을 진지한 논의의 파트너로 여기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많이 고민했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학생자치가 성립하려면 학교가 총학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행정적 권한이나 전문 인력을 갖춘 기구가 아닌 총학이 학교를 상대로 발언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의 대표자라는 사실뿐이다”라는 생각을 밝혔다. 결국은 복지 정책과 민원 수리 같은 영역의 활동들도 원동력을

가지려면 총학이 여전히 학생들의 의사를 결집하고 행동에 나서도록 주도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다.

윤성이 교수는 “결국 문제는 총학이 스스로의 역할이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총학과 단위별 학생회들이 말로는 운동권으로부터의 탈피를 주장해도 실제 활동을 보면 7,80년대 학생조직과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생회 선거가 비슷비슷한 내용에 선심성 경쟁으로 승부를 보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학생과 학생회 양쪽에 학생회가 뭉치는 곳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라면서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학생회의 역할과 규범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덧붙였다.

유학생들의 새 학기, 설렘과 막막함 사이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김성수 기자 korkeep@khu.ac.kr

우리학교 유학생들이 학기 초마다 학내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의 행정 처리에 유학생 배려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일, 청운관 1층 무인 서류 발급 기앞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는 외국인 학생들을 여럿 만났다. 유학생들이 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학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학 증명서가 필요한데, 출력할 수 있는 서류 발급기의 수수료는 카드 결제만 가능했다. 금융 기능이 있는 카드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대부분의 외국인 신입생들에겐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내국인 학생들이 참여해 외국인 학생의 적응을 돕는 국제교류처 산하단체 ‘KHUddy’ 회장 김선봉(국제학과 2018) 씨는 “유학생들이 흔히 토로하는 어려움이 행정 처리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는 점”이라면서 “유학생들의 카드 발급이 개강 후 3주차에야 시작되었는데 그동안 현금으로만 생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소한 행정 절차라도 유학생의 입장에서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살필 수 있었다.

물론 외국인 신입생들에게도 학생증 발급과 같이 학내 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오리엔테이션이 외국인지원팀에 의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8월 27일 진행된 외국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수강신청, 비자 관리, 장학금, 기숙사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다만 외국인 신입생의 수강신청 역시 8월 27일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학생들이 수강신청 및 학내 생활을 미리 준비하기엔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신입생 바르치노이(관광학



우리학교는 유학생이 많은 축에 속하지만, 학교가 유학생들의 적응과 학업에 필요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지는 의문이다.

“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신입생 필수 과목 수강지연을 겪고 받기도 하는 등 유학생들은 학교의 설명과 다른 현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019)씨는 수강신청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학생 커뮤니티를 제대로 접하지 못한 채 혼자서 어떤 강이가 적합할지 판단해야 했다. 졸업 요건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이수 과정에 대해서도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바르치노이 씨는 “학내 생활에 대해 알려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지만 학기 시작 후 몇 주가 지나서 매칭이 이뤄져 아쉬웠다”며 “학생 커뮤니티에 속하지 못한 대부분 외국인 학생의 특성상 빨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있었다면 적응에 수월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건물 위치에도 익숙지 않았던 바르치노이 씨는 첫 날부터 건물을 혼동해 다른 교실에 들어가는 등 혼란을 겪어야 했다.

사라(국제학 2019) 씨는 “수강신청 필수 과목에 대한 공지도 수강신청 2시간 전에야 메일을 통해 확인했다”며 “메일에 영어 강의 목록만 첨부되어

있었고 별도의 안내는 없었다”고 당시의 곤란했던 상황을 떠올렸다. 사라 씨는 “혼자서 관련 정보를 찾고 싶었지만, 웹사이트 중 다른 언어를 제공하는 페이지는 일부였다”며 “본인 정보를 등록해야하는 경우에도 한국어로 안내돼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문제는 교실에서도 이어졌다. 신입생이 수강하도록 설계되고 개발된 ‘인간의 가치 탐색’ 등의 수업 첫 시간은 유학생에 대한 권고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에 달하지 않는 유학생들은 수업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고학년 때 수강하기를 추천한다는 내용이다. 외국인 학생들은 신입생 때 수강할 것을 원하는 학교 측의 설명과 다른 현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기 초 수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다.

외국인지원팀에서는 TOPIK 4급 미

취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역량강화 한국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일부 과목에 대해 한국인 학생들을 멘토로 연결해주는 ‘GLOBAL K-멘토링’같은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글쓰기와 토론을 주된 평가기준으로 삼는 중핵 교과들의 특성을 감안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8년 우리 학교에서 언어능력 충족 외국인 학생의 비율은 60.5%였다(대학알리미). 바르치노이 씨는 TOPIK 5급 취득자로 학업 역량강화 한국어 프로그램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빠른 수업 진행 및 토론에 원활히 참여하기 위해 더 많은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전했다.

외국인지원팀의 웹사이트에는 학내 생활에 대한 정보 역시 탑재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인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할 수 있는 ‘학점 관리’ 영역에는 ‘수업 빠지지 않기’, ‘과제 열심히 하기’, ‘모르는 것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질문하기’, ‘예습, 복습하기’와 같은 내용만 적혀 있다. 수업에 임하는 기본 태도일 뿐, 외국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라 말하기 어렵다.

우리학교는 가장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는 대학 중 하나다. 외국인지원팀 백성선 팀장은 “외국인 지원팀은 해외 연수 업무 및 유학생을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외국인 학생 유치 및 학업 지원을 위해 외국인 학생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사라 씨는 “우리학교가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교에 대한 기대를 표하는 한편, “학교가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에 도움을 준다면 더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찾아올 것이고 학내 생활에도 만족할 것”이라며 학교 측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2019-2학기 경희공도전장학 신청안내문

목적

• 학생들의 인생목표 수립, 진로탐색 등 심도있는 자아성찰 계기 마련

• 목표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 추진, 결과를 도출을 통한 학생 융합실계능력 함양

• 교수-학생 간 실질적 지도 계기 마련

지원대상

• 2019-2학기 기준 3학기 이상의 정규학기 재학생

•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전의지가 있는 학생

• 성적 및 이수학점, 가계곤란정도 제한없이 신청가능

• 개인 또는 팀으로 신청 가능

신청제한

※ 경희공도전장학 기수해자는 개인 또는 팀리더로 신청불가

※ 경희공도전장학 기수해자를 팀원으로 포함할 경우에는 선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경희공도전장학 신청주제로 타 장학금을 수혜하거나 학점을 이수한 경우 신청불가

(ex) 독립연구, 전환2장학 등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정규학기 초과자, 장학규정 위배자, 2019-2학기 휴학(예정)자 신청불가

신청분야

①창업 / ②봉사 / ③탐방 / ④연구 / ⑤자유주제

※ 분야를 택일하여 장학신청

※ 도전분야와 활동계획서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함

선발인원

50명/팀 내외

※ 선발인원과 관계없이 장학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선발방법

• (1단계)서류평가(100점)로 최종선발인원의 15~2배수 선발

(2단계)면접평가 후 서류평가(100점)+면접평가(100점)로 최종대상자 선발

※ 서류 및 면접평가 시 평가위원의 평균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선발인원과 관계없이 탈락됨

• 평가항목 및 반영비율

구분	평가항목
서류평가 (100점)	활동계획서(90점)
	꿈과 도전주제의 연계성(25점)
	실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35점)
	실행결과와 공공성(10점)
면접평가 (100점)	장학금 사용계획의 적절성(15점)
	학생지도계획의 충실성(10점)
	학생 잠재력, 도전의식 및 발전가능성(20점)
	도전목표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20점)
	실행계획의 준비도 및 추진의지(30점)
	실행결과와 공동체 파급력 및 사회 기여도(30점)

장학금 지급액

1인/팀당 200만원-500만원

• 개인/팀이 본인의 도전주제 및 실행계획에 따라 희망장학수혜금액(① 200만원 ②300만원 ③400만원 ④500만원) 선택

※ 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본인이 신청한 장학금액과 수혜학정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장학생 선발시 수혜학정금액의 1/2 선지급, 중간보고서 제출 후 잔여장학금의 1/2(수혜학정금액의 1/4) 지급,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발표회 참석 후 심사를 통해 잔여 장학금(수혜학정금액의 1/4) 지급

예) 공도전장학금 500만원 선발자 : 선발시 250만원 지급, 중간보고서 제출 확인 후 125만원 지급, 결과보고서/결과발표회 종료 및 확인 후 125만원 지급

※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의무사항 이행없이 도전을 포기할 경우 기 지급받은 장학금은 반환해야함

※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 등록금 이외 장학으로 등록금 초과지급 가능

• 팀으로 응모한 경우 팀 리더에게 전액 지급됨

장학금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9. 9. 16.(월) 09:00 ~ 10. 11.(금) 17:30 [4주간]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후 서류 별도 제출

1) 온라인신청 : 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신청) 장학/용자신청) 2019-2학기 경희공도전장학

2) 서류제출

가) 제출기간 : 2019.10.08.(화) 09:00 ~ 10.11.(금) 17:30

나) 제출처 : 학생지원센터(장학)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초 7번 창구)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센터(장학)

2019년 예비군 기본훈련 1차보충 안내문(공고)

2019년도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대학직장 예비군 기본훈련 1차 보충훈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전일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 훈련일자 및 대상

훈련일자	인원(명)	소속
계	688	
10.14(월)	276	간호과대학(14), 경영대학(3), 경영대학원(10), 문과대학(44) 미술대학(2), 법학전문대학원(8), 생활과학대학(12), 약학대학(14) 언론정보대학원(3), 음악대학(10), 의과대학(9), 의학전문대학원(7) 이과대학(58), 일반대학원(2), 자율전공학과(8), 치과대학(4), 치의학전문대학원(13), 한의과대학(4), 호텔관광대학(51)
10.17(목)	392	경영대학(186), 공공대학원(1), 관광대학원(2), 교수처(4), 교육대학원(7) 의과대학(3), 일반대학원(49), 정경대학(140)

※ 2019. 9. 16(월) 기준임

2. 장소

육군 제6보병사단 221연대 급곡예비군훈련대(급곡훈련장)

3. 버스 출발장소 및 시간

청운관 앞 07시 50분

4. 개별출발

개인차량, 대중교통(도농역역차 2번출구 → 30번, 23번, 1-4번, 93번 승차 → 훈련장 도착)

※ 악도 참조 / 내비게이션 '급곡예비군훈련장' 또는 '충일하누리아파트' 검색

5. 전과 등으로 소속이 다른 경우 반드시 예비군연대본부로 통보

6. 상기훈련일에 훈련이 곤란할 경우 예비군홈페이지 '휴일 또는 전국단위훈련을 신청'하여 이수 가능

7. 훈련대상 확인요령

09. 11(수) 이후 '예비군홈페이지 → 나의 정보 → 소속(훈련정보)'에서 자신의 소속과 훈련사항을 확인 ⇨ 미등록학인 즉시 예비군연대본부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함

• 훈련안내 : 훈련소집통지서는 이메일, 훈련일자, 장소 SMS 문자 전송 예정

8. 복장: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에 한하여 복장대여 가능 / 훈련 1일 오전 중 연대방문 또는 전화 신청

9. 훈련 당일 신분증 지참(미지참 시 입소 불가)

• 가능한 신분증 : 실물로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모바일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사용 불가)

10. 09시 이후 도착자 입소 불가(자가 및 대중교통 이용자는 출근 시간 교통정체 고려 조기 출발)

11. 훈련 간 교관 / 조교 통제에 순응(안전수칙 준수, 신체 이상 시 즉각 보고하여 조치 받을 것)

12. 입소 후 훈련 간 휴대폰 사용 시 경고 없이 강제폐소

• 단, 훈련부대장 승인 시 휴식, 중식 시간 등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가능

13. 훈련 전별 음주 자제(입소 및 교육 간 음주자 확인 시 강제폐소)

14. 가방(백팩) 휴대 자제 및 소지품(휴대폰, 지갑) 관리 철저

15. 문의 : 네오르네상스관 1층 예비군연대본부 / 02-961-0148-9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대학직장 예비군연대장

2019 PBF

PBF2019 “기후변화 대처, 정치적 의지 모으기부터”

〈PEACE BAR FESTIVAL〉

장보경 기자 jbg9687@khu.ac.kr
오진영 기자 clara0504@khu.ac.kr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제38회 UN 세계 평화의 날 기념 ‘2019 Peace BAR Festival(PBF)’이 우리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다. 행사는 포럼, 원탁회의, 전시회 ‘Dear Amazon: 인류세 2019’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우리학교는 1982년 이래 매년 9월 21일 경 인류사회의 평화와 미래문명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PBF를 개최하고 있다. PBF에서 BAR은 ‘spiritually Beautiful, materially Affluent, humanly Rewarding’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올해 PBF는 ‘기후재앙과 진실의 정치-미래세대에 미래는 있는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과 원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18일에 열린 포럼은 “Save the Earth, Make the Future”를 주제로 진행됐다. 패널로 피터 와담스(Peter Wadhams) 케임브리지대학 교수와 이안 던롭(Ian Dunlop) 로마클럽 회원, 미래세대 대표 학생들이 참석했다.

정치리더의 부족한 의지
지역공동체 힘으로 매꿔가야

와담스 교수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구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육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지금까지의 방법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이상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던롭 회원은 “기후변화는 인류 생존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구는 증

가하지만 자원은 고갈되는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했다. 던롭 회원은 전기 설비 구축과 화석연료 사용 금지, 에너지 절약을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인식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 리더들이 변화를 도모할 역량이 없다면 지역사회의 젊은 세대가 앞장서서 건설적인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이 물리는 경종에도
무관심한 미래세대

두 석학과 미래세대의 대담도 이어졌다. 우리학교, 경희고등학교, 경희여자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참석해 기후변화에 대한 미래세대의 대응방안을 석학과 논의했다. 다음날 원탁회의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와담스 교수, 던롭 회원의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반기문 전 총장은 “경희대학교에서 기후변화를 주제로 개최하는 의미만한 행사에 참석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가 정부만의 역할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역할임을 강조하며, 일상생활에서의 습관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덧붙여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이 자연이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미래세대에 충고의 목소리를 전했다.

송미선(지리학 2016) 씨는 “평소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아 참석했고, 기대했던 내용을 배워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는 의견도 전했다. 더불어 송 씨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며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① Peace BAR Forum

피터 와담스 케임브리지대학 교수와 이안 던롭 로마클럽 회원, 미래세대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기후위기의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세대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두 석학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는 환경문제를 넘어 경제와 정치의 방식까지 직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② 세계 평화의 날 기념식

‘기후재앙과 진실의 정치-미래세대에 미래는 있는가’를 주제로 하는 PBF2019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식이 열렸다. UN 세계 평화의 날 제정의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 소개 영상으로 시작했다. 축사와 더불어 미래세대의 전언을 담은 영상 상영과 조인원 이사장의 기념사 그리고 기념공언으로 이루어졌다. 이 기념식에 모인 세계 석학들은 입을 모아 세계 평화와 기후재앙에 대한 세계 각국과 비즈니스 리더 그리고 시민사회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③ 원탁회의

세계 석학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위기에선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이들은 “모든 경제적인 성장모델에 지속 가능이라는 표현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통해 기후변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④ ‘Dear Amazon : 인류세 2019’ 전시회

브라질과 한국의 예술가 27명이 모여 준비한 ‘Dear Amazon: 인류세 2019’는 3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전시가 진행됐다. 이번 전시는 드로잉, 설치 퍼포먼스를 망라해 현시대의 상황과 미래를 전망했다. ‘Dear Amazon’과 기후변화를 인식하기 위한 ‘라운드 프로젝트’, 영상 작품을 선보이는 ‘스크리닝 프로그램’ 등이다. PBF의 주제인 기후 재앙 그리고 미래세대에 알맞은 이번 전시는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구성됐다.

2019 온라인 폭력 예방 교육

- 기간** 2019.09.16(월) ~ 2019.10.14(월)
- 대상**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재학생 (학부 / 대학원)
- 방법** 성평등상담실 홈페이지 (<http://web.khu.ac.kr/~happyou>)에 탑재된 5개 영역별 영상 시청 후 폭력 예방 퀴즈 답안 작성하여 제출
(* 10문제 모두 맞은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100명에게 경품 지급)
- 내용**
 - 1. 성희롱
 - 2. 성폭행
 - 3. 성매매
 - 4. 가정폭력
 - 5. 음매
- 결과발표** 2019.10.17(목) (성평등상담실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문의** 02) 961-0208 / happyou@khu.ac.kr

10문제 모두 맞은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상품을 드립니다 !

- 1등 공기청정기 (5명)
- 2등 가습기 (10명)
- 3등 무드 방향제 (10명)
- 4등 스탠 머그컵 (10명)
- 5등 스타벅스 카드 1만원권 (30명)
- 6등 스타벅스 카드 5천원권 (35명)

* 상품 품목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서울캠퍼스 성평등상담실

2019년 하반기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문제풀이 특강 참가자 모집안내

□ **교육 개요**

- 국내 대기업/중견기업의 80% 이상이 입사시험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업 직무적성검사 대비, 방학 중 기본교육에 이어서 문제풀이 특강을 통한 실전능력 배양 및 자신감 향상
- 블라인드 채용 확산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직무적성검사 대비 역량 극대화
- *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시험 일정 : LG(10.12), KT(10.12), SK(10.13), CJ(10.19), 삼성(10.20), 롯데(10.26)

□ **교육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9. 9. 30 (월) ~ 10. 4 (금) 18:10 ~ 21:40 (단, 10.3(목) 제외)
- 장소 : 정경대 111호
- 인원 : 100명 (선착순 마감) ※ 단, 폐강기준은 80명입니다.

□ **교육대상** : 4학년 취업준비생 (하반기 공제 및 인턴을 준비하는 3학년, 수료생, 졸업생도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 9. 11(수) ~ 2019. 9. 27(금) (사전 마감 가능)
- 신청방법 : S취업컨설팅 홈페이지(<http://sssjob.com>)에서 접수

□ **신청방법**

1단계 : <http://sssjob.com> 접속 → ‘수강신청하기’ 클릭 →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선택 후 신청
2단계 : 교육비 총 60,000원 중 학생은 30,000원 계좌 입금 (우리은행 1002-337-683690 / 예금주 : 이음교)
(교육비 중 30,000원은 미래인재센터에서 지원)
※ 2단계까지 완료 확인되면 S취업컨설팅에서 일괄 확인문자 발송예정 - 개별 확인 자체 요망
참고 : 시온 때 직무적성검사 교육 수강료는 강남학원 등에서는 1인당 20~30만원

□ **수강자 혜택**

- 1) 문제풀이 특강 시합지 지급 : 4대 기업 (삼성, LG, SK, CJ) 모의시험 문제지 및 정답해설집 제공
- 2) 모의시험 본 문제집 및 정답해설집 제공 (1회당 15,000원 상당)
- 3) 모의시험 결과 (전국동수 및 백분율 결과표) 48시간 내 제공

□ **교육 일정 (총 4일 12.5H 집중과정 - 영역별 문제풀이 특강 10H + 모의시험 1회)**

구분	일자	시간	교육 내용	교육시간(H)	강의실
1일차	9/30(월)	17:40 ~ 18:10	등록확인 및 교재배부	0.5	정경대 111호
		18:10 ~ 21:10	공간지각력(시각적사고)	3.0	
2일차	10/1(화)	18:10 ~ 21:40	수리, 추리A(도식,도형,수열)	3.5	
3일차	10/2(수)	18:10 ~ 21:40	추리B(논리게임,명제), 언어	3.5	정경대 111호
10/3(목) : 개별 학습기간					
4일차	10/4(금)	18:10 ~ 20:30	파이널 모의시험 (GSAT A형)	2.5	

단, 교육일정은 동일 커리큘럼 내에서 사정상 변동될 수 있음

□ 문의 : S취업컨설팅 고객센터(☎010-8331-8479), 미래인재센터(☎02-961-0167)

□ 비교 : 2학기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집중교육(SIZE) 2기 실천반 참여 학생의 경우 본 교육 신청 요망

KHU 미래혁신원 미래인재센터(서울C)

경희대학교 지식창업교육센터 산학협력 세미나

2019-2학기 지식재산세미나 개최 안내

2차

주제 IP기반의 효과적인 R&D전략
강사 정태원 박사(한국특허전략개발원 융합전략팀 팀장)
대상 교내 구성원 및 기업인
일시 2019.09.24(Tue) 11:00 ~ 12:00
장소 경희대 국제캠퍼스 멀티미디어교육관 312호

3차

주제 Computational Thinking
강사 김종근 교수(영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대상 교내 구성원 및 기업인
일시 2019.10.16(Wed) 13:30 ~ 14:45
장소 경희대 국제캠퍼스 공과대학 107호

4차

주제 시각 예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강사 조경숙 교수(성균관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대상 교내 구성원 및 기업인
일시 2019.10.30(Wed) 13:30 ~ 14:45
장소 경희대 국제캠퍼스 공과대학 107호

문의 : 경희대학교 지식창업교육센터(031-201-5351~2)

“90년대생”의 건투를 빌며...

교수칼럼

김종수
한국어학 교수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KBS 2TV에서 방영된 <회사 가기 싫어>라는 드라마는 여러 가지로 흥미로웠다. “조밀 착 리얼 오피스 드라마”라는 부제처럼 현대 직장인들의 일상사를 가감 없이 그렸다는 점에서 특이했다. 전개되는 이야기 중간에 외국인의 시선으로 해당 사건을 논평하면서 현대 한국인들의 집단 심리를 꼬집는 방식도 신선했다. 무엇보다 2014년 최대 인기작인 <미생>이 고졸 계약직 사원의 성공기로 다수의 청년들에게 대리 만족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했던 것과 비교할 수 있다. <회사 가기 싫어>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90년대생”의 일상적 면모를 재현하였다는 점에서 말그대로 ‘리얼’한 드라마였다.

드라마와 현실에서 주목받는 “90년대생”

이 드라마 속 90년대생 사원은 점심 시간이 업무 외 시간이므로 사무실의 동료 직원과 같이 식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정시 퇴근을 엄수하여 업무와 사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길 원한다. 기존 조직 사회의 관행과 위계를



세대 갈등은 사회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있어야만 하는 투쟁이다.

(사진=중앙일보DB)

고려하지 않는 당돌한 직원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90년대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작년 연말에 출간된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올해 초부터 세간에서 인기를 끌었다. 급기야 윌버튼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이 책을 선물하며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해를 위해 노력하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로 전해지면서 90년대생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익히 알다시피 “90년대생”은 대학교에서 대개 09학년부터 18학번에 해당하는 현재 20대

청년들이다. 이들은 2007년에 유행했던 “88만원 세대”에 속하기도 하면서 “Z세대”에도 걸쳐 있다.

20대는 사회에 활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세대

“88만원 세대”라는 명명이 기성세대에게 착취당하고 있다는 청년 세대의 정치경제학적 상황을 담고 있다면, “Z세대”는 디지털 매체에 익숙하고 대중문화 산물의 적극적 소비자인 청년 세대의 개성적이며 독립적인 면모를 강조한다. 최근에는 90년대생들이 “9급공무원 세대”

라고 불리기도 한다. 오랜 경제적 불황이 야기한 취업난의 여파로 다른 어떤 직종보다도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공무원에 대한 강한 선망의식에서 비롯된, 소박하지만 절박한 세대명이다.

20대 청년 세대는 사회의 모든 조직에서 활력을 불어넣을 가장 중요한 세대이다. 헝가리 출신의 사회학자 칼 만하임이 주장하듯 젊은 세대의 부상과 기존 세대의 퇴진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원 교체를 통한 사회 변동은 필연적이다. 이때 전개되는 인구학적 신진대사의 순환, 즉 세대 교체 과정에는 세대 갈등이 항상 일어난다. 성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는 자식과 ‘살아보니 어른 말대로 하는 것이 현명하더라’라는 부모의 갈등처럼 사회의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청년 세대와 기존 세대는 사사건건 부딪치게 마련이다. 세대 갈등은 당사자들 간에는 곤혹스럽고 난처할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침체된 분위기를 해소하여 사회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있어야만 하는 투쟁인 것이다.

냉혹한 사회를 이끌 90년대생의 건투를 빈다

사실 90년대생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최근의 현상은 90년대생의 적극적인 세대 역할에 주목하기보다 그들의 사회적 효용론을 설파하고 있는 듯 보인다. 분위기 맞출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당돌한 90년대생’에 대한 ‘사용설명서’(‘90년생이 온다’의 저자는 대기업 인사관리 직종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를 근거로 90년대생에 대한 경제적 효용성과 정치적 장악력을 극대화하려는 기존 세대의 의도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90년대생은 사회가 요구하는 경제 활동 인구로서 정당한 지위에서 활약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내몰려 사회적 위축감 때문에 세대 갈등의 중심 주체로서 역할마저 포기하게 될까 염려스럽다. 냉혹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90년대생의 건투를, 그나마 빌 따름이다.

교수사회의 변화를 위해 - ②

대학의 주인은 재단이나 교수가 아닌 사회이다



김종인(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김종인 교수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학 내부의 불합리를 절실히 체험했다고 말한다. 그는 내부자이자 관찰자로서 그간 직접 보고 겪은 문제들을 알리기 위해 칼럼을 연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총 6회 분량의 연재가 계획돼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대학을 포함한 모든 학교는 공공성을 띠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지 당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학교가 공공성을 띠어야 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또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도 자신들이 다니는 대학이 사립대학이라서 등록금이 비싸고 국공립대학이라 조금 저렴하다는 것만 알 뿐 양자의 제도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대학의 등록금 문제나 재단 비리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대학을 공공기관처럼 여기다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이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국공립대학은 국가재산이고 사립대학은 사유재산이 아니냐고 대답한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사이에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모든 대학은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설립하여 그 운영권을 행사하는 국공립대학이 공익기관임은 당연하다. 설립자와 그 계승자들에 의해 구성된 학교법인에 운영권이 있는 사립대학 역시 설립 목적에 공공성이 명시된 공익적 기관이다.

이러한 공익적 성격 때문에 학교법인, 특히 대학 법인은 사립일지라도 다른 분야의 (재단) 법인들과 다르다. 운영 주체인 특정 단체나 설립자 개인의

재산보다 더 많은 설립 자금을 일반인들의 기부금을 통해 조달할 수 있었다. 더욱이 대학이 설립된 이후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는 설립 주체들의 기금 출연은 거의 없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제외하면 국가의 각종 지원이나 일반인들의 기부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가는 대학의 확장을 위해 토지를 불하해 주고 (아주 싼값에 팔거나,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싼 땅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용도변경을 해주고), 교육부는 각종 예산을 지원해주고, 기업들은 건물을 지어주고, 일반인들은 기부금을 낸다. 이처럼 대학의 법인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이 국가와 사회 공동체로부터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사실상 재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가 사회 전체의 소유물이다. 한마디로 대학의 주인은 사회이고, 법인은 그 운영을 위탁받은 주체이며, 대학교수들은 법인의 피고용자들이다.

그런데 대학의 이러한 공공성이 운영 주체인 법인과 피고용인인 대학교수(전임 교수)들 양자로부터 침탈당하고 있다. 교수들은 늘 신임 교수의 임용에 대해 절대적인 권리를 행사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학과 운영의 기본 방향을 사회적 현실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

로 결정하고, 대학의 수장인 총장을 자신들의 의사대로 선출하려 한다. 대학교수들은 대학에 재산을 투자한 주인들이 아니라 대학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피고용인임에도 불구하고 황당하게도 주인 행사를 하고 있다.

대학교수들이 대학의 주인인 양 행사하게 된 것은 그들이 역사적인 연원을 가진 사회적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특권의 한 연원은 유교 사회의 유산으로서 전근대사회 형성된 지식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에 있다. 조선 시대 이래 한국 사회는 유가 지식인들이 500년간 통치했다. 이때 형성된 지식인을 사회적 엘리트로 존중하는 문화의 잔재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그 때문에 지식인은 청빈하며,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를 염려하고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는 존재들로 포장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학교수들은 유가적 지식인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지식인이다. 같은 대학의 시간강사들이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강사료로 빈곤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들은 높은 연봉 덕분에 자식들을 해외에 유학 보내고, 자신도 방학이 되면 술하게 해외여행을 가서 행복한 모습을 SNS에 자랑하는 이기적인 유한계급일 뿐이다.

교수들 특권의 또 다른 연원은 근대사

회 사상의 자유 연장선에서 오는 학문적 자유 이념이다. 대학교수들은 학문과 연구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들이 대학 총장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이러한 말도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민주화된 오늘날 한국의 대학교수들은 학문 연구에서뿐 아니라 사회 비판 활동에서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지금 교수들이 사실상 자신들의 손으로 총장을 뽑겠다는 것은 단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일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교수들은 대학에 최소한의 재정적 기여도 않고 대학으로부터 가장 큰 경제적 혜택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다. 대학 운영에 관한 시대착오적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을 덜도록 하거나 동료 시간강사들의 생계를 돕도록 해야 한다. 기금 마련 등으로 자신들이 받은 혜택의 일부라도 대학사회에 되돌려 주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연재칼럼 목차>

1. 강사법 시행과 총장 선출
2. 대학의 주인은 재단이나 교수가 아닌 사회
3. 대학교수들의 구시대적 권리 행사
4. 교수 길드의 전근대적 폐쇄성, 대학교육 낙후
5. 교수 길드의 해체를 위한 국가공인박사제도
6. 교수들의 관습적 권한을 폐기해야 한다

경희인 - 아침을 여는 사람들 ④

새 하루를 맞이하는 설렘 가득한 '설국버스'

서울버스 기사 최봉혁, 육동규 씨

김성수 기자 korkeep@khu.ac.kr

#. 우리학교에는 남들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 아침,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그들의 땀방울은 우리학교의 아침을 이룬다. 우리신문은 '경희의 아침을 여는 사람들'을 만나봤다. 교정을 거닐면서 무심코 지나쳐왔던 그들의 목소리, 그 속에는 각자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지금부터 현장에서 마주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

영화 <설국열차>에서 '설국열차'는 하얗게 뒤덮인 설원을 달린다. 정해진 선로를 목적 없이 배회하는 설국열차와는 달리, 우리학교에는 서울·국제캠퍼스(양캠퍼)에서 출발해 서로를 목적으로 달리는 '설국버스'가 있다.

“동안은 무슨 동안이야?” 젊어 보인다는 기자의 인사말에 설국버스 최봉혁(67) 팀장은 손사래를 친다. 여기에 옆에 있던 육동규(66) 기사는 한술 더 뜨며 덧붙인다. “우리가 팀장님이라고 잘 받들어주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지.” 육 씨의 녀석 섞인 지적에 최 팀장은 곧바로 대응한다. “원래 가만히 놔두면 빨리 늙는데, 옆에서 간혹거리면 정신 빼짝 차리면서 세월이 비껴가나봐.” 국제캠퍼스 사색의 광장 너머, 다섯 평 남짓한 기사 휴게실은 웃음꽃이 번졌다.

설국버스에 오르는 순간부터 승객들의 하루는 시작, 혹은 끝으로 정의된다. 오전 7시 15분, 첫 번째 설국버스가 서울캠퍼스에서 출발한다. 곧 7시 20분이 되면 국제캠퍼스의 첫 설국버스도 서울을 향해 달린다. 설국버스 안에는 쪽잠에 빠져드는 사람, 즉석김밥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는 사람도 있다. 그 순간 설국버스는 호텔이자 식당으로



최봉혁(오른쪽) 씨와 육동규(왼쪽) 씨는 양 캠퍼스를 이어주는 베테랑 기사다.

바뀐다. 저마다의 아침이 한데 모여, 버스 안에는 새 하루를 맞이하는 설렘으로 가득하다. “적어도 6시 반에는 와야 차량 점검부터 시작해서 운행 준비를 할 수 있지.” 설국버스 기사는 이들의 모든 아침을 책임지기 위해 보다 일찍 아침을 시작한다.

오후 6시가 되면, 양캠퍼에서 동시에 마지막 설국버스가 출발하며 경희의 하루는 마무리된다. 이 시각의 설국버스는 저녁노을과 함께 승객들의 노곤함으로 물든다. 하루는 학생들이 시험을 끝내고 돌아오는 날이었다. 최 팀장이 백미러로 승객들이 다 내린 것을 확인한 뒤, 다음날의 통학 노선을 운행하기 위해 부평으로 가는 길이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는 중저음의 엔진 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러던 찰나에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아저씨, 여기 어디예요?” 시험기간에 쌓인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깊은 잠에 들어버린 학생이었다. “분명히 다 내린 줄 알았는데 그 학생

이 폭 쓰러져서 잔 거야. 그때는 서로 미안한 거지.” 최 팀장은 그날의 경험 때문에 운행이 끝나고 좌석이 다 비었는지 일일이 확인해본다.

육 씨는 1991년부터 버스 핸들을 잡고 있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맨 처음 자신이 운송업체에 뛰어들 계기를 정확히 기억한다. “버스 운전 하면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친구의 권유로 시작했지.” 시작한 노선버스였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첫차 시간을 맞춰야 했다. 자동차가 없어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다. 밥 먹을 시간조차 없어서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허다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힘들었지만, 육 씨는 어느새 양캠퍼를 이어주는 베테랑 기사가 됐다. 그가 지금까지 일을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딱 감고 생각해보면 내일 갈 데가 있어서 기분이 좋지.” 이제 버스 핸

들을 잡는 일은 육 씨에게 일상 이상의 의미다. “지금 일에 100점 만점에 120점으로 만족해. 후회는 없어.”

최 팀장은 운송업체에 몸담은 지 올해로 10년차에 접어들었다. 여태껏 직업으로 삼아온 일만 해도 열댓 가지쯤 된다. 50대에 접어들어서 선택한 이 일이 평생 직업으로 삼아온 것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셈이다.

'감사합니다'란 인사 설국버스 기사들의 가장 특별한 순간

그가 사회에 발을 내딛던 당시에는 군대식 수직 문화가 만연했다. 조직에 맨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 업무를 처리하기보다 눈치를 보느라 더 바빴다. 그래서 다른 일들과는 달리, 운송업은 최 팀장에게 더욱 특별했다. 그가 버스 핸들을 잡는 순간부터는 운전이 그만의 시간이 된다. “나만의 공간에서 내 하기 나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복

을 줄 수 있는 일이지.” 그는 노동량에 비해 월급은 많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운전석에 앉을 때마다 느껴지는 설렘을 표현했다. “돈만 보면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이게 제일 내 직업이야.”

특히나 이 일은 최 팀장에게 더욱 중요하다. 2007년 미국 발 금융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에게 직업 공백기가 생겼다. 당장 며칠 동안은 좋았다. 세파에 쫓겨 만나지 못했던 친구 얼굴도 보고, 혼자서 바닷가로 여행도 다녀왔다.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세월을 돌아볼 수 있는 시기였다.

이 순간은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했다. 집에 있으면서 부인이 차려주는 밥 세 끼를 꼬박 받아먹었다. 미안한 감정이 쌓여만 갔다. 하루 종일 부인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보람이라면, 첫째가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이지 않을까?” 최 팀장이 이 일에 더 애정을 품고 있는 이유다.

이들의 출발선은 달랐지만 일에 임하는 자세는 동일했다. 육 씨는 운전 경력이 30년에 가깝지만, 여전히 ‘달인’이라는 호칭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운전이 숙달될수록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해. 엇그저께 면허 딴 기분으로 항상 긴장하면서 해야지.” 최 팀장은 마음가짐에 더불어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을 보탰다. “건강에 이상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 버스 안에는 몸이 여럿이다 보니 자칫하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

운행이 끝나고 설국버스에서 내릴 때, 우리는 습관처럼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통해 그들에게 인사를 건넨다. “그런 인사를 들을 때마다 그날의 피로가 풀리고, 나도 덩달아 힘이 나지.” 아주 짧은 시간, 운전석을 잠깐 스쳐간 표현은 설국버스 기사들의 가장 특별한 순간이었다.

독립 투자전문그룹, 미래에셋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9-03478호 (2019.08.28 ~ 2019.10.04)

한번 다운로드, 평생 글로벌 투자파트너- 미래에셋대우

좋은 파트너 선택이 평생투자를 좌우합니다.
앞선 파트너와 함께 하세요

- 11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 글로벌 리서치센터
-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총 33개국 거래 가능 (온라인/오프라인 포함)
- 국가간 환전 없이 당일 사고파는 통합증거금 서비스

*일부 통화한정 / 실시간 결제환율 적용

2019 미래에셋대우 대학생 디지털 금융 페스티벌

- 프로그램 : 모의투자대회 / 빅데이터 분석대회 / 아이디어 경진대회
- 접수기간 : 2019.9.9 ~ 10.4 / 대회기간 : 2019.9.23 ~ 11.8
- 참가대상 : 대학(원)생, 휴학생
- 총 상금 2,200만원, 해외탐방의 기회까지!

※ 자세한 사항은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참조

[미래에셋대우 고객센터 1588-6800] ■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내주식거래시 수수료는 신규 영업점 개설 계좌 온라인 0.14%, 오프라인 0.49% 신규 다이렉트 계좌 온라인 0.014%, 오프라인 0.49%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해외주식거래시 수수료는 온라인 0.25~0.45%, 오프라인 0.50~1.00%(국가별 거래수수료 상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해외주식 등 외화자산은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대우